

대학 교수 임용 이어 교과서에 작품 수록

3월 들어 잇따라 경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달 초 대학 교수로 정식 임용돼 대학 강단에 선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행운까지 찾아왔다.

주인공은 순천 출생 서양화가 정성준(44) 씨로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임용된 가운데 초등 교과서에 생명과 환경의 위기는 물론이고 소중함을 설파한 작품이 수록된 것.

〈본보 3월 12일자 11면 참조〉

그의 작품은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사용하는 '미술3' 교과서 49쪽 상단에 수록됐다 실린 작품으로는 '나무 심기 좋은 날'로 멸종위기동물 캐릭터가 담겨진 이상숙 작가의 '멸종위기 동물 티셔츠'와 함께 나란히 실려 작품 속 동물들과 티셔츠 속 동물들을 서로 찾아가며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의 작품 '나무 심기 좋은 날'은 유채를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72.7×72.7cm 크기다. 2023년 작업한 작품이며,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사각 형태의 작품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의 작품 안에는 사람 대신 동물들이 사막에서 식물을 가꾸는 모습이 그려졌다. 작품 안에는 북극곰과 흑곰, 펭귄, 여우, 레서판다, 참새 3마리 등이 등장하고, 거기다 수레와 그 위에 거름, 삽, 물조리개가 그려져 있다. 붉게 변해 사막화가 진행된 땅 위에 동물들이 삽으로 나무를 심재하며 거름을 주고 물을 줘 가꿔간다는 스토리다. 작가는 각종 식물들이 사막에서 잘 자라 더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나무 심기 좋은 날'

수목 파괴돼가는 환경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고, 많은 미술애호가들이 그의 작품 속 메시지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정성준 작가는 유년시절 화가가 꿈일 때 미술교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국정교과서였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현실화돼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성준 작가는 첫 교과서 수록과 관련해 "국정 교과서 3학년 미술 교재에 제 작품이 실렸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정성준 화가, 초등미술 3~4학년군 교재에 소개

2023년 작 '나무 심기 좋은 날' 환경 소중함 설파

록 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개된 작품 이미지 옆에는 QR 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정 작가의 화가로서의 여정과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생각 등이 담겨져 있는 인터뷰 영상까지 나오게 되어 정 작가에 대한 이해를 어린이들이 껴볼 수 있도록 했다.

정 작가는 그동안 꾸준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화두로 트랩에 북극곰이 오르는 모습을 통해 갈

자라나는 전국의 꿈나무들에게 교훈을 주는 멋진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정성준 작가는 유학 생활과 직업 활동을 펼치느라 자신이 10년 넘게 머물며 활동했던 북경에서 개인 전시를 예정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제10회 개인전을 방학 중인 오는 8월 중 798예술특구 소재 작자화랑에서 열기로 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정성준 화가

CULTURE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출간한 입체 책 '숨 쉬는 도시'

ACC재단 출간 '숨 쉬는 도시'

블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숙)이 출간한 입체 책 '숨 쉬는 도시'가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제 62회 블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의 '에메이징 북셀프'(BRAW Amazing Bookshelf) 전시 도서로 선정됐다.

전 세계 아동 도서 출판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인 이탈리아의 '블로냐 국제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은 각 나라의 출판사와 작가, 삽화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장이다. 행사 중 하나인 에메이징 북셀프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다룬 전 세계 도서 중 우수한 150권의 아동 도서를 선정해 소개하는 전시다.

입체 책 '숨 쉬는 도시'는 이번 전시 주제와의 적합성과 다채로운 색채의 삽화, 입체 구조의 아름다움 등을 인정받아 우수 도서로 선정됐다.

재단이 지난 2023년 발간한 입체 책 '숨 쉬는 도시'는 난개발로 파괴돼 가는 도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매 쪽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몰입도 높은 입체 구조와 눈길을 사로잡는 색채의 삽화로 독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재단은 이번 블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의 전시도서 선정을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의 도서 상표인 들락 북스(DLAC BOOKS)의 책들을 본격적으로 해외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한편 들락 북스 도서들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과 어린이문화원 내 상품점 들락 키즈, 온라인 상점 들락(www.accdlacshop.co.kr),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남도 출신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시립국악관현악단 내달 4일 광주예당

최명화·신민서·김성주 명인 등 출연

품격 있는 국악의 대중화를 꿈꾸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5년 첫번째 연주회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1회 정기연주회 '꿈, RETURNS'가 오는 4월 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위촉 초연곡 세 작품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왕성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남도 출신 국악 명인들의 금의환향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첫번째로 문경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 작곡한 위촉 초연곡 '연어'를 연주한다. 바다를 향해 떠나 대양을 누비는 연어의 거침없는 몸짓과 그 달음질 끝에 다시 회귀하는 삶의 여정을 담아낸 국악관현악곡으로, 연주회에 함께하는 국악 명인들과 고향을 떠나 삶을 영위하는 동향인들의 마음을 담아낼 예정이다.

두 번째로 약기 생활이 주는 다채로움과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소리를 담아낸 이준호 작곡가의 생활협주곡 '풍향'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 예술고등학교 출신으로 KBS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하고 이화여대와 한양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최명화 명인이 생활 연주를 선사한다.

세 번째 무대로 위촉 초연곡으로 이정호 작곡가의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꿈'을 들려준다. 파카소의 그림 '꿈'을 모티브로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기법을 음의 색채에 그려듯 연주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41회 정기연주회 '꿈, RETURNS'이 4월 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 작품은 선이 굵고 깊은 남성적인 느낌을 뜻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관현악 저음부의 활용도를 높여 장중함을 드러낸다. 가야금 협연으로는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으로 이화여대, 용인대, 추계예대 외래교수를 역임한 신민서 명인이 함께한다.

네 번째는 창과 관현악 무대로 판소리 '수궁가' 중 '가자 가자' 대목을 만나본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는 여러 동물들의 각가지 모습을 인간 세대에 빗대어 해학과 슬픔을 조화롭게 담아낸 작품이다. 보성소리 4대 전승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보유자인 정희

석 명창과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지도단원으로 활동 중인 고수 김성주 명인이 협연한다.

다섯 번째 무대 역시 위촉 초연곡으로 이정호 작곡의 거문고협주곡 'F107'을 선보인다. 인간의 꺼져가는 열망과 다시금 피어나는 희망을 관조하는 듯한 이 작품은 인생의 관망과 역동적인 모습을 거문고의 음색으로 표현한다.

거문고는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으로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은영 명인이 협연한다.

끝으로 이경섭 작곡의 피리협주곡 '바람의 유희'를 들려준다. 장단과 박자 그리고 재즈는 물론 트로트와 전통음악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다양한 소리를 피리로 표현한 곡이다. 광주 출신인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피리 협연에 나선다.

이날 공연의 사회는 권기원 광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와 서울시청소년국악단 해금수석을 역임한 김지연이 맡는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광주 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415-5403.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목요콘서트' 출연단체 공모 참여하세요

광주문화재단, 25일부터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화웅)은 올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클래식 및 재즈 음악, 국악 공연에 참여할 '2025년 목요콘서트' 연주단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목요콘서트는 오는 5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8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1회 공연당 25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으며,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용, 공연 안내 보조인력, 홍보물 제작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목요콘서트 공모 신청 자격은 역량을 갖춘 광주지역 소재 전문 예술단체로, 출연진은 5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한다. 공연은 60분 이상 80분 이하의 음악 프로그램(클래식·재즈·국악)으로 구성

해야 하며, 소공연장 무대에 적합한 공연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은 84석의 관람석과 2개의 분장실을 비롯해 조명·음향 장비, 빔프로젝터, 그랜드피아노 등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공연은 유료(입장료 5000원)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경영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실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객석 중 10석은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대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최종 18개 단체를 선정하며, 결과는 4월 11일 오후 5시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의자에 인간 내면의 근본 심리 투영

사진강 개인전 광주대서 30일까지

사진강(사파라) 작가의 다섯번째 개인전이 지난 13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광주대 극가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What the heck!'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화면에 인간 내면의 근본 심리를 투영하고 있는 의자를 등장시킨다. 작가는 지난 2022년 전시 'Respect Others Body'에서 '사람의 신체를 경외하라'며 의자에 앉은 여인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의자를 찬양하라'며, 작가가 직접 리폼한 쓰레기장 속 의자 시리즈 9점, 제작 과정 영상, 100호 대작 5점 외 평면 작품을 출품,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쓰레기장에 놓인 의자를 통해 앉은 의자, 부모의 욕망이 담긴 의자, 힘의 속성을 가진



'Motif for chair 2'

의자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한다. 의자에 새 옷을 입히고 색깔하면서 아무만지는 등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내 의자를 소중히 생각하게 됐고 찬양하게 됐다. 쓸모없어지면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의자를 환골탈태시킨 반려 의자를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풀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제이홉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정상 디지털 싱글 '모나리자' 67개국 1위

그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과 정국이 각각 솔로곡으로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지난 22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제이홉의 디지털 싱글 '모나리자'(MONA LISA)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67개 국가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에 올랐다.

전날 발표된 이 노래는 브라질,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과 '유러피안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22개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 '톱 10'에 들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명 작품에서 이름을 딴 곡으로, 매력적인 상태를 향한 찬가다. 그루비한 리듬, 평탄한 코드, 청량한 사운드와 조화를 이룬 힙합 알앤비(Hip-hop·R&B) 장르의 노래다.

제이홉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녹음 비하인드 영상에서 "목표는 확실하다.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을 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라며 신곡의 의도를 설명했다.

연합뉴스